

부채보유가계와 미 보유 가계의 특성 분석 및 가계의 부채용도와 대출기관별 보유 상태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이경미*, 주소현**

I 서론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문제 중 하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이다.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위험을 파악하고 가계의 재무 건전성 확보와 이를 위한 정책 마련은 단순히 가계의 안정을 넘어 국가 안정을 위한 과제가 된 시점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가계부채의 원인에 대해 이자율 상승, 부동산 가격하락 등의 거시적 접근과 가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소득 등의 요소로 파악하는 단편적 분석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부채 관련 위험과 원인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미시적으로 분석하고자 가계부채의 발생 원인과 이용하는 금융기관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가계부채는 단순히 가계만의 문제이거나 금융기관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다. 가계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금융기관을 파악하고, 이러한 금융기관이 부채 총액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연계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가계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는 금융기관이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은 가계부채 관련 정책마련에 미시적 토대를 제공하고 가계의 부채 부담을 감소시킬 방안에 대한 실무자의 관심을 제공하는 데 있다.

한편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2016년 2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하며 신용등급 전망도를 안정적으로 평가하였다(기획재정부,2016). 하지만 한국경제의 취약요인으로 기업부실 및 구조개혁 지연가능성과 가계부채등을 지적하였다(해럴드 경제, 2016.3.26). 미국 컨설팅 회사 맥킨지(Mckinsey)의 작년 발표에서도 한국은 세계 7대 가계부채 위험국가라 하였다(KBS News, 2015). 무디스와 맥킨지에서 지적하였듯이 한국의 가계 부채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된 것이다. 따라서 소득상위계층의 부채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체고 할 필요성이 있다(조영무, 2015). 금리의 급격한 상승, 집값의 폭락, 경기의 장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소득층과 상관없이 가계부채가 대량 부실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GDP기준 약 88%가 가계 대출이며, 이는 매년 약 10% 정도의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반 가계 부채일 뿐 소규모자영업자의 부채까지 포함하면 1400조원을 훌쩍 뛰어넘어 1500조원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한국은행 보도자료, 2016.2.24.).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석사과정, E-mail: amy.lee.330@gmail.com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E-mail: sohyunjoo@ewha.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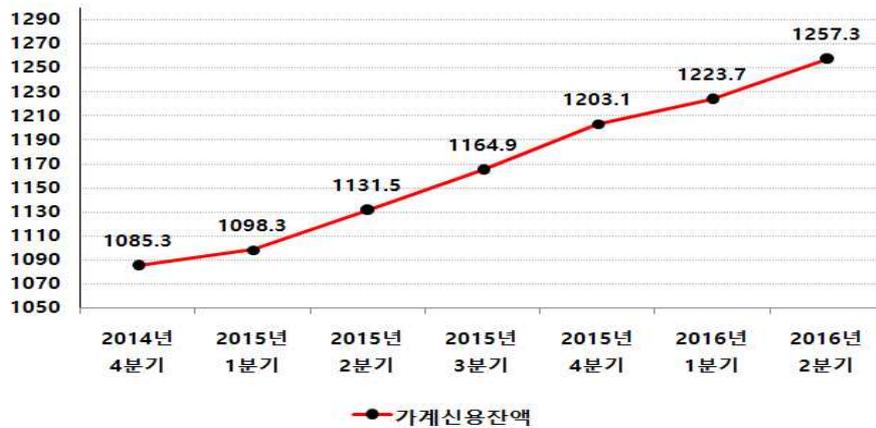
그간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책을 많이 제시하였으나 중요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현재 정부는 가계부채를 불이기 위해 주택 담보대출 강화와 여신금융 가이드라인을 제2금융권까지 적용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부채 보유를 한 가계와 보유하지 않은 가계의 차이를 파악해야 하며, 부채 보유가구가 이용하는 대출 기관이나 대출 용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채가 많은 생계형 대출자들에게 제1금융권의 대출을 막을 경우 오히려 제도권 밖으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부채의 비율은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상위부채 가계의 경우 부동산 가격에 민감한 경우가 많으며, 이는 부동산 가치가 1%증가할 경우 부채 증가율이 저 부채 가계보다 0.32%크게 앞지르게 된다(이투데이, 2016.4.20.). 또한 부채 수준이 높은 가구의 경우 만기 일시 상환방법 또는 제2금융권등과 같은 부채 특성이 위험한 대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이희숙·곽민주, 2013), 이것은 결국 부채 상환을 어렵게 하고 가계부채의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악순환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듯 각 가계특성과 부채 유형 및 목적에 따라 부채총액이 다르며, 정부 정책의 특성이나 금리에 따라 부채 증가율의 차이를 가져온다. 주택담보대출을 기반으로 급증한 가계부채는 위험수위를 넘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뿐만이 아니라 가계의 자산관리 방안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내수 경기 활성화와 소비증가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가계의 부채 감소에 대한 노력이 시급할 수밖에 없으며,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탐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가계에게 더 나은 부채 관리 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경기 침체 속에서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우리나라 가계부채 현황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GDP대비 88.4%로 선진국 22개국, 신흥국 19개국을 합한 41개국 중 8위를 나타냈으며 신흥국 19개국 중 가계부채 비율은 1위를 기록하였다(안유미, 2016). 일본의 경우 65.9%, 중국의 경우 38.8%로 한중일 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상태이다. 한국은 2002년 신흥국들 중 가계부채 비율이 61.4%로 가장 높았던 홍콩을 앞지르면서,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GDP대비 높은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아주경제, 2016.3.8.).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세계 주요 40여 개국 가운데 3번째로 빠른 속도이다(헤럴드 경제, 2016.9.25.). 한국은행은 한국의 가계부채 위험 수위를 임계치에 도달했다고 평가했고(경향신문, 2016.11.1.), 국제결제은행(BIS)도 한국의 가계부채 위험 수위를 주의 단계로 올렸다(YTN, 2016.11.7.). 한국의 가계부채 큰 폭으로 빠르게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위험수위에 도달한 상태이다. 이러한 과도한 가계부채는 소비 및 저축의 위축, 자산 가격 하락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1〉 한국의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 추이 (단위=조원)



자료: KOSIS > 재정·금융·보험 > 금융 > 통화금융통계 > 예금/대출금/기타금융 > 가계신용(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 2016.11.13., <http://kosis.kr/>

한국의 가계신용 추이를 〈그림1〉에서 보듯이 매분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4분기 1203조에서 2016년 1분기 1223조로 약 1.7% 증가하였다. 이는 1인당 가계부채가 약 2,450만 원을 의미한다. 또한 지난해 대비 가계신용이 121조 7000억 원으로 증가하였는데, 그 중 69조 1000억 원이 주택담보대출로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에너지경제, 2016.3.2.). 부동산 비수기로 여기는 7월에도 주택담보대출이 6조원 가까이 증가를 보였으며 대출 금리도 6월 연 2.77%로 지난달 보다 0.12% 하락했다(해럴드경제, 2016.8.10). 이러한 부동산 과열과 기준금리인하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현재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2. 가계부채에 관한 기존연구 동향

Brown & Taylor(2005)는 영국, 독일 미국 자료들을 이용하여 가계수준에서 부채와 금융 자산 축적의 결정요인과 가계의 자산과 부채 사이의 상호 의존 정도를 탐색하였다. 가계의 소득 및 연령에 따라 변화하며, 저소득 집단에서는 부채와 금융 자산 간의 정적 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집단은 금융 충격에 있어서 특히 취약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Pressman & Scott(2013)은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은 상당한 소비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높은 금리를 지불하고 있다. 과거 소비 부채에 대한 이자는 소득 불평등을 측정 할 때 고려되었으나, 좀 더 구체적으로 가계부채가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이자지급 전후의 분배지표의 변화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Johnson & Li(2007)은 높은 부채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이 소비 평탄화에 방해가 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1992년에서 2005년까지의 소비자 비용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높은 가계 채무 상환비율은 소득 변화에 따른 소비 민감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진 않았으나, 대출 제약 가계를 식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Dynan(2012)은 미국의 가계자료를 활용하여 자산대비 부채비율에 따른 가계와 소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높은 부채는 가계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차입형 주택 보유자는 다른 주택보유자보다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소비가 크게 감소했다. 이는 단순히 부의 효과로 예측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차입상태가 소비에 더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Cooper(2012)은 미국의 경기불황 이후 부채상환으로 인해 소비 지출에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가계 부분의 부채축소가 소비에 직접적으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히려 소비 변동 요인으로 가구 소득과 순 자산의 변동이 더 유의한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동 자산이 적고 높은 부채상환비율을 가진 가계의 소비는 유동자산이 적은 가구의 소비 보다 소득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국내에서도 가계부채와 소비지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는데 임은정(2013)은 가계가 보유한 부채 특성과 부채비율이 가계의 경제적 부담 및 소비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부채유형과 부채상환액, 평균이자율 및 부채총액 등의 변수들을 부채 특성으로 보았으며, 가계부채 비율을 상, 중, 하로 구분하였다. 또한 소비항목을 필수재, 준선택재, 선택재로 구분하여 가계가 느끼는 부담 및 실제 소비정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계가 보유한 부채액 및 부채상환액은 가구주의 연령과 소득, 결혼상태, 가구크기에서 유의하였고, 가계의 부채 부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는 가구주의 학력, 직업, 소득, 제1금융권 부채보유여부 등이 있었다. 또한 가계부채비율에 있어서는 가구주의 학력과 부채상환비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실제 가구의 소비항목별 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으로 부채상환액이 유의한 변수로 나왔으며, 가계부채비율의 경우 부채비율이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종철, 최영주(2015)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금융위기 이전 누적된 가구의 부채 수준이 이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의 지속성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금융위기 이전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높았던 가구일수록 이후 소비 위축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중·상위 소득 계층에서 더욱 유의하게 나타났다. 황진영, 이선호(2015)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소비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가계부채와 소비 및 소득 간에는 공적분 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장단기 구분 없이 가계부채의 증가는 소비의 증대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소비의 경우 단기적으로 크게 영향을 준 반면 소득의 경우 장기에만 영향을 주었다.

Georgarakos & Pasini(2014)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계 대출의 종류 및 크기, 잠재적인 경제적 고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자신의 수입이 동료의 수입보다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채와 경제적 고통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 더 많은 대출을 가질 경향이 있다고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소득이 높은 집단의 지출형태를 모방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대출을 하려고 결정하며, 그 결과 사후 대출 상환에 대한 잠재적인 경제적 고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 한다고 밝혔다.

Becker & Shabani(2010)은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가계의 금융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변화하고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가계의 경우 그들의 자산 소

유에 대한 관심이 적을 것이라 보았으며, 주택 담보대출이 적은 가계보다 주식 보유율은 10%, 채권 보유율은 37%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대출의 높은 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가계가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 주식시장 참가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없게 한다고 하였다. 임병인, 윤재형(2016)은 소득계층별 자산 포트폴리오의 변화와 가계의 위험금융자산 투자에 대한 Arrow의 가설을 검증하며 이를 소득계층별로 실증 분석하였다. Arrow의 가설은 위험회피적 의사결정자의 위험선호는 DARA(decreasing absolute risk aversion)이고 IRRRA(increasing relative risk aversion)를 의미하는 것이다(양준모, 최진석, 2007). 소득계층별로 실증 분석한 결과 부가 증가할수록 위험금융자산을 늘려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 하며 부가 감소할 경우 손실을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고소득층일수록 위험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많으며, 저소득층과 달리 투자비율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부채보유 가계와 미보유 가계의 특성은 어떠한가, 그리고 부채 용도와 대출기관의 특성 및 이러한 변수들이 부채 총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연구목적에 위해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에서 금융부문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였고, 가계의 특성과 부채 특성 및 용도의 차이 분석 및 부채 총액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조사도구 구성,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1. 연구 이용 자료 및 연구대상

우리나라는 전체 가구의 통계를 추정하기 위해 매년 전국의 2만 가구를 선정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금융조사와 복지부분조사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조사하고 이러한 조사를 통해 가계의 생활수준 정도와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아가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단순히 가계의 재무상태만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및 금융관련 정책 등의 연구 활용 자료로 이용된다. 조사항목은 금융부분 160개 항목과 복지부분 143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접조사와 인터넷조사를 통해 1년간의 소득 및 지출, 원금상환액 및 이자지급액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각 항목의 세부 내용으로 금융부분에서는 크게 가구구성,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으로 이루어져있고, 복지부분에서는 가계지출과 노후생활로 되어있다(통계청, 2015).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룰 가계부채 항목과 관련하여 금융패널조사 항목은 가구원이 대출한 대출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대출금을 대출목적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 예를 들어 주

택 구입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자가 주택 대출로 분류되며, 자동차 구매가 주목적일 경우 이동수단 대출로 분류되어진다. 또한 해외휴가가 주목인 경우에는 기타 대출 및 부채를 포함한 소비자금융대출로 분류된다. 이러한 기타 대출 및 부채에는 식품 또는 휴가와 같은 소비재구매, 귀중품 구매, 납세 또는 다른 가계로의 자본이전, 다른 가계에 대출을 위한 대출, 이전 항목들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가계 대출과 부채 등을 포함하고 있다(통계청, 2015).

본 연구는 통계청의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자료 중 금융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문제 1을 수행하기 위해 금융부문 패널자료는 총 9056가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문제2와 3을 위해 금융패널 자료 중 부채 보유 가계 5675만을 선정하였다. 이 중 일반화 속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20억 이상인 부채 비율의 극단 값 (extreme value) 9 가계와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보유한 가계 1508을 제외하고 금융 부채만을 보유한 4158가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가계금융복지조사 금융패널 가계의 부채 보유 가구는 부채미보유가구와 인구통계학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2] 가계의 부채용도별 보유상태 및 관련요인은 무엇인가?

- 2-1. 각 용도별 가계의 부채 보유율, 보유규모는 어떠한가?
- 2-2. 각 용도별 부채 보유 보유는 가계의 특성과 어떠한 관련을 보이는가?
- 2-3. 부채용도별 보유는 가계부채 총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 가계의 대출기관별 보유상태 및 관련요인은 무엇인가?

- 2-1. 각 대출기관별 가계의 부채 보유율, 보유규모는 어떠한가?
- 2-2. 각 대출기관별 부채 보유 보유는 가계의 특성과 어떠한 관련을 보이는가?
- 2-3. 대출기관별 보유는 가계부채 총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분석변수 및 구성

3.1 배경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은 가구를 중심으로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직업, 가구 유형, 주택소유 여부, 소득 수준 등으로 아래의 <표1> 같이 구분하였다.

<표1> 사회인구학적 및 경제적 특성

항목명		설명
사회인구학적 변수	가구의 특성	1. 가구주 성별 2. 가구주 연령 3. 가구주 교육 수준 4. 가구주의 직업 -직업군 1: 상용근로자 -직업군 2: 임시, 일용근로자 -직업군 3: 자영자 -직업군 4: 무직 등(무직자, 가사, 무급가족종사자, 학생, 실 적급의 보험설계사, 대리 운전기사, 학습지 방문 교사 등)
	가계 특성	5. 가구주 혼인 상태 6. 거주 지역 7. 가구크기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8. 입주 형태(자가집, 전세, 월세, 기타)
가계경제특성	9. 가계소득 5분위	

3.2 부채이용 기관 특성

가계가 이용하는 금융기관 특성을 금융권 부채와 비금융권 부채로 크게 2가지로 구분하
나 본 연구에서는 금융부채 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금융부채는 아래 <표2>와 같이 구분
된다. 금융권 부채에는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 기타 4가지로 구분된다. 제1금융권
은 담보 또는 신용대출시 은행을 이용한 경우이다. 제2금융권은 담보나 신용대출 기관이 저
축은행, 비은행금융기관, 보험회사, 여신전문기관이 포함된다. 제3금융권은 기타기관과 대부
업체이며, 기타 금융부채로 직장, 각종공제회, 개인, 신용카드 관련대출, 외상 및 할부미상환
액, 기타부채가 있다.

<표2> 부채유형

항목명		설명
부채유 형	제1 금융권	<담보대출&신용대출기관> -은행
	제2 금융권	제2금융권 <담보대출&신용대출기관> - 저축은행 - 비은행금융기관: 단위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등 - 보험회사, 여신전문기관
	제3 금융권	제3금융권 <담보대출&신용대출기관> - 기타기관, 대부업체
	기타	- 직장, 각종 공제회, 개인 - 신용카드 관련대출

			- 외상 및 할부미상환액 - 기타부채 (갯잔후 불입금액)
--	--	--	------------------------------------

3.3 부채용도 특성

부채용도의 구분은 통계청 구분에 따랐으며, 가계부채의 용도를 1)거주주택마련, 2)거주주택이외 부동산마련, 3)전(월)세 보증금 마련, 4)증권투자금 마련, 5)부채상환, 6)사업자금(영농자금포함)마련, 7)결혼자금 마련, 8)의료비 마련, 9)교육비 마련, 10)생활비 마련, 11) 기타 용도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을 본 연구에서는 주택 구매, 소비생활용도, 금융관련 용도, 기타 4가지로 분류하였다. 주택구매 부채에는 거주주택마련, 거주주택이 외 부동산마련, 전(월)세 보증금 마련으로 총 3가지가 포함된다. 소비생활용 부채에는 결혼자금 마련, 의료비 마련, 교육비 마련, 생활비 마련으로 총 4가지 포함된다. 금융관련 용도는 증권투자금 마련, 부채상환, 사업자금(영농자금포함)마련으로 총 3가지가 포함되며, 마지막으로 기타로 되어 있다.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표3>와 같다.

<표3> 부채용도

항목명		설명
부채 용도	주택구 매	-거주주택마련 -거주주택이외 부동산마련 -전(월)세 보증금 마련 -임대보증금
	소비생 활용도	-결혼자금 마련 -의료비 마련 -교육비 마련 -생활비 마련
	금융관 련 용도	-증권투자금 마련 -부채상환 -사업자금(영농자금포함)마련
	기타	기타용도 (신용카드 관련, 외상 및 할부미상환, 갯잔후 불입금액)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금융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SPSS Windows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문제와 분석목적에 따라 사용된 다양한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부채 보유 및 미보유 가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채 보유 가구의 부채 용도

와 금융기관 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과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해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분산분석의 추후검정으로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을 통하여 구별되는 그룹을 분류하였다. 가계의 부채 용도와 금융기관에 따른 부채 총액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분석대상가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 대상가구는 4,158가구로, 인구통계학적·사회경제학적 특성으로 연령, 성별, 결혼상태, 교육수준, 가구 크기, 거주지, 입주형태, 직업, 소득수준을 변수로 파악 하였다. 이러한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4>에 제시하였다.

조사 대상이 되었던 가구주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 각각 82.8%, 17.2%로 남성 가구주의 가구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전체 금융패널조사 대상의 경우 남성이 76.8%, 여성이 23.2%였다. 가구주의 연령의 경우 40~50세가 3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50~60세가 26.5%, 30~40세가 21.3%, 60세 이상이 19%, 30세 미만이 2.4%으로, 조사 대상 가구의 연령분포는 대체로 40세 이상으로 밀집되어 있었으며, 평균 연령은 49세였다. 금융패널조사 대상의 경우 60세 이상이 33.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60세 미만이 24.5%, 40세~50세 미만이 24%, 30~40세 15.4%, 30세 미만이 2.2%로 분포되어 있다. 금융패널 조사 대상의 평균 연령은 53세였다. 분석대상의 결혼상태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77.2%로 가장 높았으며, 이혼의 경우 10% 사별은 6.4%, 미혼은 6.4%로 대부분의 분석 대상 가구는 기혼의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다. 금융패널조사 대상의 경우 역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69.6%, 사별이 13.1%, 이혼이 9.2% 미혼이 8%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분석대상 가구의 가구주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상이 41.9%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이 38.9%, 초등학교 졸업 10.1%, 중학교 졸업 9%순이었다. 금융패널의 경우 대학교 졸업 이상이 36.6%, 고등학교 졸업이 33.8%, 초등학교 졸업이 18.8%, 중학교 졸업이 10.8%였다. 분석대상 가구주의 직업은 상용근로자인 경우가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영자가 29.3%, 관리자, 임시일용근로자가 12.9%, 무직이 9.8%로 나타났다. 금융패널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39.7%, 자영자가 25.8%, 무직이 21.3%, 임시 일용근로자가 13.3%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가구의 크기는 4인가구가 33.7%로 가장 높았으며, 3인가구가 23.1%, 2인가구가 20.1%, 5인 가구 이상이 12.7%, 1인가구가 10.4%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패널 조사가구의 경우 4인가구가 26.3%, 2인가구가 25.7%, 3인 가구가 20.2%, 1인가구가 18.3%, 5인가구가 9.5%, 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가구의 주거 지역은 비수도권이 65.3%이며 수도권 지역이 34.7%로 나타났다. 금융패널의 경우 비수도권이 65.1%, 수도권이 34.9%되어 있다. 입주형태의 경우 자가인 경우가 62.8%로 가장 높았으며, 전세가 17.6%, 월세가 15.4%, 기타가 4.2%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패널조사의 경우 자가인 경우가 60.9%, 전세가 17.7%, 월세가 15.1%, 기타가 6.4%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가구의 소득 수준의 경우 소득 3분위가 23.7%, 소득 4분위가 23.6%, 소득5분위가 20.7%, 소득2분위가 20%, 소득1분위가 11.9%로 나타났다. 금융패널의 경우 소득1분위가 23%, 소득2분위가 19.7%, 소득2분위가 19.4%, 소득5분위가 19.1%, 소득4분위가 18.8%로 나타났다.

<표4> 분석대상 가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4158) (N=9056)

변수	구분	부채보유가구		금융패널조사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3441	82.8	6955	76.8
	여	717	17.2	2101	23.2
연령	30세 미만	101	2.4	201	2.2
	30~40세 미만	886	21.3	1397	15.4
	40~50세 미만	1277	30.7	2173	24.0
	50~60세 미만	1102	26.5	2217	24.5
	60세이상	792	19.0	3068	33.9
	평균(SD)	49.08(11.99)		53.98(14.53)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421	10.1	1700	18.8
	중학교 졸업	376	9.0	976	10.8
	고등학교 졸업	1618	38.9	3061	33.8
	대학교 졸업 이상	1743	41.9	3319	36.6
결혼여부	미혼	266	6.4	726	8.0
	배우자 있음	3209	77.2	6307	69.6
	사별	267	6.4	1189	13.1
	이혼	416	10.0	834	9.2
가구크기	1인가구	432	10.4	1660	18.3
	2인가구	836	20.1	2328	25.7
	3인가구	960	23.1	1826	20.2
	4인가구	1402	33.7	2380	26.3
	5인가구 이상	528	12.7	862	9.5
수도권여부	수도권	1441	34.7	3158	34.9
	비수도권	2717	65.3	5898	65.1
입주형태	자가집	2610	62.8	5514	60.9
	전세	732	17.6	1600	17.7
	월세	642	15.4	1365	15.1
	기타	174	4.2	577	6.4
직업	상용근로자	1996	48.0	3595	39.7
	임시 일용 근로자	537	12.9	1200	13.3
	자영자	1219	29.3	2336	25.8
	무직 등	406	9.8	1925	21.3
소득	소득1분위	496	11.9	2086	23.0
	소득2분위	833	20.0	1781	19.7
	소득3분위	987	23.7	1757	19.4
	소득4분위	982	23.6	1698	18.8
	소득5분위	860	20.7	1734	19.1
총합계		4158	100.0	9056	100.0

2. 부채보유 여부에 의한 가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계의 부채용도별 보유상태가 분석대상가구의 인구통계학적·사회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행하여 X^2 값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부채보유와 미보유 상태는 인구통계학적·사회경제학적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패널 분석대상 중 부채보유가계는 남성이 더 많았으며 미보유 가계에는 여성이 많게 나타났다. 부채보유가구의 경우 연령이 60세 미만까지 많이 나타났으나, 부채 미보유 가계에서는 60세 이상이 가계가 많이 나타났다. 부채보유 가계는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많은 반면, 부채 미보유 가계에서는 중학교 졸업 이하가 높게 나타났다. 부채를 보유한 가계에서 결혼상태가 배우자가 있거나 이혼한 경우가 많게 나타났다. 반면 부채 미보유 가계에서는 미혼이거나 사별한 상태가 높게 나타났다. 부채보유 가계는 가구크기가 3인 가구 이상부터 높게 나타났다. 부채를 미보유 한 가계에서는 2인가구와 1인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김주영(2014)의 연구에서 전체 가구원수 증가가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이었다는 것과 일치된 결과를 보여준다. 부채 보유와 미보유는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부채를 보유한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입주형태는 자가로 보유하거나 전세인 경우가 많았다. 반면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계는 월세나 기타 거주형태에서 높게 나타났다. 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직업은 상용근로자와 자영자에게서 높게 나타났고, 부채를 미보유 한 가계의 경우 임시일용근로자와 무직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부채보유 가계는 소득분위가 1분위에서 5분위로 갈수록 높게 나타났다. 부채 보유와 미보유 가계의 인구통계학적·사회경제학적 특성은 <표5>과 같다.

<표5> 부채보유 여부에 의한 분석대상 가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 %)

변수	구분	부채보유가구 (n=4158)		부채미보유가구 (n=3381)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3441	(60.6)	2239	39.4
	여	717	(38.6)	1142	61.4
	X^2	274.363***			
연령	30세 미만	101	(51.8)	94	(48.2)
	30~40세 미만	886	(69.2)	395	(30.8)
	40~50세 미만	1277	(69.3)	567	(30.7)
	50~60세 미만	1102	(62.7)	655	(37.3)
	60세 이상	792	(32.2)	1670	(67.8)
	X^2	817.2573***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421	(27.7)	1101	(72.3)
	중학교 졸업	376	(46.7)	429	(53.3)
	고등학교 졸업	1618	(62.5)	971	(37.5)
	대학교 졸업 이상	1743	(66.5)	880	(33.5)
	X^2	680.0693***			

결혼여부	미혼	266 (39.8)	403 (60.2)
	배우자있음	3209 (63.6)	1834 (36.4)
	사별	267 (25.4)	784 (74.6)
	이혼	416 (53.6)	360 (46.4)
	X ²	587.4763***	
가구크기	1인가구	432 (28.0)	1110 (72.0)
	2인가구	836 (43.8)	1073 (56.2)
	3인가구	960 (63.9)	543 (36.1)
	4인가구	1402 (73.8)	497 (26.2)
	5인가구 이상	528 (77.0)	158 (23.0)
X ²	1004.6733***		
수도권여부	수도권	1441 (57.7)	1055 (42.3)
	비수도권	2717 (53.9)	2326 (46.1)
	X ²	10.0353***	
입주형태	자가집	2610 (60.0)	1739 (40.0)
	전세	732 (54.6)	609 (45.4)
	월세	642 (48.9)	672 (51.1)
	기타	174 (32.5)	361 (67.5)
	X ²	173.5323***	
직업	상용근로자	1996 (66.6)	1003 (33.4)
	임시 일용 근로자	537 (48.9)	561 (51.1)
	자영자	1219 (65.5)	643 (34.5)
	무직 등	406 (25.7)	1174 (74.3)
	X ²	809.3223***	
소득	소득1분위	496 (26.0)	1414 (74.0)
	소득2분위	833 (53.0)	740 (47.0)
	소득3분위	987 (66.0)	509 (34.0)
	소득4분위	982 (71.9)	384 (28.1)
	소득5분위	860 (72.0)	334 (28.0)
	X ²	1023.753***	

* p < .05, ** p < .01, *** p < .001

3. 부채 용도에 따른 부채 보유 현황 및 관련 요인

3.1 부채용도별 부채보유 현황

부채용도별 부채 보유 현황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관련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부채용도는 주택용도, 금융관련용도, 소비생활용도, 기타용도 총 4개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채용도 중 2개 이상 용도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각 목적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므로, 2개 이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의미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게 되었다.

부채 용도별 빈도를 살펴보면 주택구매목적으로 전체의 37.2%인 946명으로 나타났다. 금융용도는 17.6%로 447명이 이용하였다. 소비생활은 18.5%로 470명, 마지막으로 기타용도로는 26.7%인 680으로 나타났다. 부채 용도의 빈도분석 결과는 <표6>과 같다.

<표6> 부채용도별 빈도

변수	구분	빈도 (%)
----	----	--------

부채용도	주택구매	946 (37.2)
	금융용도	447 (17.6)
	소비생활	470 (18.5)
	기타용도	680 (26.7)

3.2 배경변수에 따른 부채용도별 보유

성별에 따른 부채 용도별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주택용도에서, 여성의 기타용도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50세 미만까지는 주택용도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50세 이상에서는 기타용도에서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중학교 이상일수록 주택용도로 이용하고 초등학교의 경우 기타용도로써 이용이 높았다. 결혼상태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주택용도의 부채 부채를 보유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사별에서는 소비생활용도에서 부채를 보유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미혼과 이혼에서는 기타용도에서 높게 나타났다. 가구크기를 살펴보면 1인가 구에서는 기타용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2인 가구 이상은 주택용도에서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과는 상관없이 주택용도에서 부채이용이 높았다. 입주형태의 경우 월세 및 기타에서 기타용도로 부채를 보유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는 주택용도에서 부채 보유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의 직업에서 상용근로자는 주택용도에서 부채 보유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기타용도에서 부채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경우 금융관련용도로 부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무직의 경우 소비생활 용도로 인한 부채 이용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분위에 있어서 소득1분위의 경우 소비생활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소득2분위의 경우 기타용도로 많이 이용했다. 그 외 소득3분위 이상으로는 주택용도에서 부채 이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부채용도별 분석 대상 가계의 부채 보유 현황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7>과 같다.

<표7> 부채용도별 분석대상 가계의 부채보유 현황(N, %)

변수	구분	부채용도			
		주택용도	금융관련용도	소비생활용도	기타용도
성별	남	808 (39.1)	382 (18.5)	345 (16.7)	530 (25.7)
	여	138 (28.9)	65 (13.6)	125 (26.2)	150 (31.4)
	X ²	39.753***			
연령	40세 미만	309 (50.2)	38 (6.2)	105 (17.1)	163 (26.5)
	40~50세 미만	306 (42.6)	114 (15.9)	121 (16.9)	177 (24.7)
	50~60세 미만	188 (29.0)	153 (23.6)	117 (18.1)	190 (29.3)
	60세 이상	143 (25.4)	142 (25.3)	127 (22.6)	150 (26.7)
	X ²	155.018***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67 (21.6)	80 (25.8)	78 (25.2)	85 (27.4)
	중학교 졸업	65 (28.5)	57 (25.0)	43 (18.9)	63 (27.6)
	고등학교 졸업	322 (33.9)	164 (17.3)	181 (19.1)	282 (29.7)

	대학교졸업 이상	492 (46.6)	146 (13.8)	168 (15.9)	250 (23.7)
	X ²	98.666***			
결혼 여부	미혼	46 (23.6)	24 (12.3)	56 (28.7)	69 (35.4)
	배우자있음	778 (41.6)	342 (18.3)	276 (14.8)	472 (25.3)
	사별	50 (24.5)	39 (19.1)	58 (28.4)	57 (27.9)
	이혼	72 (26.1)	42 (15.2)	80 (29.0)	82 (29.7)
	X ²	102.769***			
가구 크기	1인가구	76 (23.0)	58 (17.5)	91 (27.5)	106 (32.0)
	2인가구	190 (32.9)	116 (20.1)	114 (19.7)	158 (27.3)
	3인가구	243 (40.0)	96 (15.8)	100 (16.4)	169 (27.8)
	4인가구	348 (45.4)	111 (14.5)	124 (16.2)	184 (24.0)
	5인가구 이상	89 (34.4)	66 (25.5)	41 (15.8)	63 (24.3)
	X ²	79.21***			
수도 권여 부	수도권	449 (48.3)	115 (12.4)	172 (18.5)	194 (20.9)
	비수도권	497 (30.8)	332 (20.6)	298 (18.5)	486 (30.1)
	X ²	89.999***			
입주 형태	자가집	687 (45.0)	301 (19.7)	213 (13.9)	327 (21.4)
	전세	208 (44.7)	48 (10.3)	77 (16.6)	132 (28.4)
	월세 및 기타	51 (9.3)	98 (17.8)	180 (32.7)	221 (40.2)
	X ²	297.2989***			
직업	상용근로자	609 (50.7)	84 (7.0)	203 (16.9)	305 (25.4)
	임시 일용 근로자	94 (26.9)	37 (10.6)	86 (24.6)	132 (37.8)
	자영자	156 (22.8)	287 (42.0)	88 (12.9)	153 (22.4)
	무직 등	87 (28.2)	39 (12.6)	93 (30.1)	90 (29.1)
	X ²	500.914***			
소득	소득1분위	99 (25.3)	83 (21.2)	113 (28.9)	96 (24.6)
	소득2분위	141 (27.0)	86 (16.4)	123 (23.5)	173 (33.1)
	소득3분위	204 (36.6)	85 (15.2)	112 (20.1)	157 (28.1)
	소득4분위	252 (43.5)	94 (16.2)	76 (13.1)	157 (27.1)
	소득5분위	250 (50.8)	99 (20.1)	46 (9.3)	97 (19.7)
	X ²	148.033***			

* p < .05, ** p < .01, *** p < .001

3.3 부채용도별 가계의 부채총액 현황

부채용도별 부채 총액을 측정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Duncan의 사후검증을 수행한 결과는 <표8>와 같다. 분석 결과 부채 용도에 따라 부채 총액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이용에 있어서 주택구매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난 반면, 부채총액 평균에서는 금융용도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영애 (2010)연구에서 부채 용도에 따른 부채 보유비율에 있어서 생활비 마련이 가장 높게 나온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기타용도로 부채를 이용하는 비중에서 부채 총액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Duncan의 사후 검증 결과에 따라 소비생활용도와 기타용도가 같은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표8〉 부채용도별 분석대상 가계의 일월분산분석(ANVOA) 결과 (단위: 만원)

변수	구분	부채총액			F값	
		빈도 (%)	평균 (SD)			Da
부채용도	주택구매	946 (37.2)	6405.34	6104.773	b	104.8043** *
	금융용도	447 (17.6)	9056.09	17826.654	c	
	소비생활	470 (18.5)	1942.25	3165.494	a	
	기타용도	680 (26.7)	1106.11	3589.548	a	

* p < .05, ** p < .01, *** p < .001

3.4 부채용도가 부채총액에 미치는 영향

가계가 보유한 부채용도가 부채총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투입된 독립변수는 다중공산성의 문제가 없는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가계가 보유한 부채용도 변수이다. 이의 종속변수는 가계 부채총액이다. 부채용도는 주택구매, 소비생활용도, 금융부채관련용도, 기타용도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성별은 여성 가구주를 기준으로, 거주지역은 비수도권을 기준으로, 직업은 무직을 기준으로, 가구크기는 1인 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입주형태는 기타를 기준으로,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결혼 여부의 경우 미혼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는 5분위를 기준으로 더미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채용도는 기타용도를 기준으로 더미화했다.

부채용도에 따른 부채총액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분석결과는 다음의 〈표9〉과 같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부채 총액은 높으며($\beta=.089$), 무직인 경우보다 상용근로자($\beta=-.080$)와 임시일용근로자($\beta=-.021$)가 부채 총액이 낮다. 학력에서는 초등학교보다 대학교 졸업 이상($\beta=.109$)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부채 총액이 높게 나타났다. 고학력 가구 비중의 증가가 가계부채 증가에 일부 기여했다는 Dynan & Kohn(2007)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소득5분위를 기준으로 소득 분위가 낮아질수록 부채총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용도는 기타용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택구매($\beta=.219$), 금융용도($\beta=.286$), 소비생활($\beta=.047$) 모든 용도에서 부채총액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회귀식의 설명력은 약 17.6%였다.

〈표9〉 부채용도별 보유가 가계부채 총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B	베타	유의확률	
인구 통계 학적 요인	(상수)	2541.236		.166	
	연령	6.702	.009	.730	
	성별(여자=0)	-272.998	-.012	.631	
	수도권(비수도권=0)	1685.786	.089	.000	
	직업군 (무직=0)	상용근로자	-1467.165	-.080	.029
		임시일용근로자	-569.993	-.021	.408
		자영자	130.846	.006	.843
	가구크기 (1인가구이 상=0)	2인가구	-296.162	-.014	.679
		3인가구	-167.506	-.008	.827
		4인가구	-88.470	-.004	.913
		5인가구	1796.055	.059	.050
	입주형태	자가	831.892	.044	.303

(기타=0)	전세	-1002.496	-.042	.244
	월세	-583.920	-.024	.497
학력 (초졸=0)	중학교 졸업	1129.860	.035	.137
	고등학교 졸업	1005.614	.053	.126
	대학교 졸업이상	2035.955	.109	.005
혼인상태 (미혼=0)	배우자있음	725.919	.035	.391
	사별	67.176	.002	.946
	이혼	710.369	.024	.407
소득분위 (소득5분위 =0)	소득1분위	-4832.000	-.190	.000
	소득2분위	-3994.602	-.176	.000
	소득3분위	-3847.970	-.174	.000
	소득4분위	-2908.140	-.133	.000
부채용도 (기타용도=0)	주택구매	4147.347	.219	.000
	금융용도	6896.542	.286	.000
	소비생활	1113.283	.047	.029
R ²		.176		
F값 (유의확률)		20.713***		

* p < .05, ** p < .01, *** p < .001

4. 대출기관에 따른 부채 보유 현황 및 관련 요인

4.1 대출기관별 부채보유 현황 특성

대출기관별 부채 보유 현황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관련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출기관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 기타금융권으로 총 4개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하는 대출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각 대출기관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므로, 2개 이상 대출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그 의미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게 되었다.

대출기관별 빈도를 살펴보면 제1금융권이용은 전체의 32.9%인 1367명으로 나타났다. 제2금융권은 12.9%로 536명이 이용하였다. 제3금융권은 1.1%로 47명, 마지막으로 기타금융권으로는 17.8%인 741명으로 나타났다. 대출기관별 빈도분석 결과는 <표10>과 같다.

<표10> 부채 이용기관별 빈도

변수	구분	빈도 (%)
금융부채특성	제1금융권	1367 (32.9)
	제2금융권	536 (12.9)
	제3금융권	47 (1.1)
	기타금융권	741 (17.8)

4.2 배경변수에 따른 대출기관별 부채보유

부채이용기관별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부채이용기관별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은 제1금융권에서, 여성의 경우 제3금융권 및 기타

금융권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과 상관없이 제1금융권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인 경우 제2금융권 이용에서 높게 나타났다. 중학교 이상부터는 제1금융권을 이용이 많았다. 특히 대학교를 졸업한 상태에서는 제1금융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6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혼상태에서는 이혼에서 제3금융권 및 기타 금융권에서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미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사별에서는 제1금융권의 부채를 보유가 높게 나타났다. 가구의 크기의 경우 1인 가구에서는 제3금융권 및 기타 금융권 이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2인 가구 이상부터는 제1금융권 이용이 높았다. 거주 지역의 경우 수도권 및 비수도권과 상관없이 제1금융권 이용에서 높게 나타났다. 입주형태를 보면 자가와 전세인 경우 제1금융권에서 높았으며, 월세와 기타입주 형태인 경우 제3금융권 및 기타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제3금융권 및 기타에서 부채 이용이 높았으며, 그 외 상용근로자, 자영자, 무직 등에서는 제1금융권 이용이 많았다. 소득의 경우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제1금융권 이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 분위가 1분위에서 5분위로 높아질수록 제1금융권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분석대상 가구의 부채용도별 부채보유 특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11> 부채보유 기관별 분석대상 가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 %)

변수	구분	금융기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및 기타
성별	남	1184 (53.8)	419 (19.1)	596 (27.1)
	여	183 (37.2)	117 (23.8)	192 (39.0)
	X ²	45.955***		
연령	40세 미만	382 (58.5)	76 (11.6)	195 (29.9)
	40~50세 미만	441 (57.2)	127 (16.5)	203 (26.3)
	50~60세 미만	313 (46.3)	141 (20.9)	222 (32.8)
	60세이상	231 (39.1)	192 (32.5)	168 (28.4)
	X ²	112.177***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111 (33.2)	121 (36.2)	102 (30.5)
	중학교 졸업	99 (41.3)	71 (29.6)	70 (29.2)
	고등학교졸업	438 (44.9)	212 (21.7)	325 (33.3)
	대학교졸업이상	719 (63.0)	132 (11.6)	291 (25.5)
	X ²	173.302***		
결혼여부	미혼	90 (44.8)	29 (14.4)	82 (40.8)
	배우자있음	1105 (55.2)	370 (18.5)	527 (26.3)
	사별	77 (36.8)	65 (31.1)	67 (32.1)
	이혼	95 (34.1)	72 (25.8)	112 (40.1)
	X ²	82.439***		
가구크기	1인가구	114 (33.8)	81 (24.0)	142 (42.1)
	2인가구	280 (46.7)	154 (25.7)	165 (27.5)
	3인가구	328 (51.7)	117 (18.4)	190 (29.9)
	4인가구	488 (59.2)	124 (15.0)	213 (25.8)
	5인가구 이상	157 (53.2)	60 (20.3)	78 (26.4)
	X ²	80.31***		
수도권여부	수도권	624 (63.5)	115 (11.7)	243 (24.7)

	비수도권	743 (43.5)	421 (24.6)	545 (31.9)
	X ²	112.607***		
입주형태	자가집	968 (58.6)	346 (0.2)	338 (20.5)
	전세	248 (50.4)	66 (13.4)	178 (36.2)
	월세	114 (27.2)	94 (22.4)	211 (50.4)
	기타	37 (28.9)	30 (23.4)	61 (47.7)
	X ²	221.429***		
직업	상용근로자	787 (61.2)	155 (12.1)	344 (26.7)
	임시 일용 근로자	122 (34.0)	81 (22.6)	156 (43.5)
	자영자	329 (44.5)	244 (33.0)	167 (22.6)
	무직 등	129 (42.2)	56 (18.3)	121 (39.5)
	X ²	212.465***		
소득	소득1분위	150 (37.0)	108 (26.7)	147 (36.3)
	소득2분위	219 (40.9)	126 (23.5)	191 (35.6)
	소득3분위	288 (49.6)	126 (21.7)	167 (28.7)
	소득4분위	353 (56.3)	102 (16.3)	172 (27.4)
	소득5분위	357 (65.9)	74 (13.7)	111 (20.5)
	X ²	111.495***		

* p < .05, ** p < .01, *** p < .001

4.3 대출기관별 가계의 부채총액 현황

대출기관별 이용에 따른 부채 총액을 측정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Duncan의 사후검증을 수행한 결과표는 <표12>와 같다. 분석 결과 대출기관별 이용에 따라 부채 총액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기관별 부채 이용에 있어서 제1금융권을 이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채총액 평균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Duncan의 사후 검증 결과에 따르면 제2금융권과 제3금융권이 같은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표12> 이용하는 금융기관별 분석대상 가계의 일원분산분석(ANVOA) 결과 (단위: 만원)

변수	구분	부채총액			F값
		빈도 (%)	평균 (SD)	Da	
금융부채특성	제1금융권	1367 (32.9)	6901.72 (9804.479)	c	77.948***
	제2금융권	536 (12.9)	5010.74 (9624.431)	b	
	제3금융권	47 (1.1)	3555.55 (3931.323)	b	
	기타금융권	741 (17.8)	1123.28 (2278.202)	a	

* p < .05, ** p < .01, *** p < .001

4.4 대출기관이 부채총액에 미치는 영향

가계가 이용하는 대출기관이 부채총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투입된 독립변수는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가계가 이용한 금융대출 기관이며, 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종속변수는 가계 부채총액이다. 금융대출 기관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 기타 금융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귀분석을 위해 더미화 한 변수로 성별에서는 여성가구를 기준으로, 거주지역은 비

수도권을 기준으로, 직업은 무직을 기준으로, 가구크기는 1인 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입주형태는 기타를 기준으로,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결혼 여부의 경우 미혼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는 5분위를 기준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출기관은 제2금융권을 기준으로 더 미화했다.

분석결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부채 총액이 높게 나타났다($\beta = .089$). 직업에서는 무직을 기준으로 상용근로자일 경우 부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80$).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중학교 졸업 ($\beta = .046$)과 대학교 졸업 ($\beta = .125$)에서 부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경우 소득 5분위를 기준으로 소득 분위가 5분위에서 1분위로 낮아질수록 부채총액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rown& Taylor(2008)연구에서 저소득층일수록 가계부채에 취약하다는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국내의 민인식(2008)한 연구에서 역시 소득 및 자산 최하위 계층이 부채에 매우 취약하며 최하위 계층이 최상위 계층보다 더 많은 부채를 지니고 있다는 것과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금융권 이용에서는 제2금융권을 기준으로 제1금융권을 이용하는 경우 부채총액이 높고($\beta = .052$), 기타 금융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채 총액이 낮은($\beta = -.179$)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회귀식의 설명력은 약 16.9%였다. 결과표는 <표13>과 같다.

<표13> 이용하는 금융기관별이 부채 총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B	베타	유의확률	
인구통계 학적요인	(상수)	5282.101		.002	
	연령	-194.735	-.009	.710	
	성별(여자=0)	22.693	.034	.200	
	수도권(비수도권=0)	1599.783	.089	.000	
	직업군 (무직=0)	상용근로자	-1391.866	-.080	.027
		임시일용근로자	-533.142	-.021	.414
		자영자	1039.466	.054	.087
	가구크기 (1인가구이 상=0)	2인가구	-635.655	-.031	.345
		3인가구	-657.094	-.032	.362
		4인가구	-232.751	-.012	.759
		5인가구	468.836	.017	.579
	입주형태 (기타=0)	자가	1085.810	.061	.149
		전세	-503.625	-.022	.530
		월세	-539.198	-.023	.506
	학력 (초졸=0)	중학교 졸업	1395.339	.046	.045
		고등학교 졸업	998.545	.055	.098
		대학교 졸업이상	2197.171	.125	.001
	혼인상태 (미혼=0)	배우자있음	906.763	.046	.248
		사별	-576.939	-.018	.534
		이혼	761.353	.027	.342
	소득분위 (소득5분위 =0)	소득1분위	-5082.339	-.210	.000
		소득2분위	-4578.058	-.211	.000
		소득3분위	-4160.742	-.198	.000
소득4분위		-3150.994	-.154	.000	
금융부채특성 (제2금융권=0)	제1금융권	908.118	.052	.036	
	제3금융권	-237.445	-.004	.847	

	기타금융권	-3477.091	-.179	.000
R ²		.169		
F값 (유의확률)		20.880***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본 연구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중 금융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부채 보유 가계의 특성과 부채용도 및 부채 특성에 대한 분석을 위해 부채 보유 집단과 미보유 집단을 구분하였고, 부채 용도와 금융부채 보유 특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또한 이러한 변인들이 부채총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일반화와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고, 금융부채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비금융 부채인 임대보증금 요소는 제외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가계의 금융부채보유에 있어서 부채 보유 가구가 미보유 가구보다 배우자가 있으며 남성이고 3인 가구 이상의 크기를 가지며 소득분위가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생애주기별 가계의 특성이 부채 이용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미혼이거나 연령이 낮고 혼자 사는 경우에 반해, 가정을 이루고 그로 인해 가구의 크기가 증가 될 록 부채 이용이 많아지며 60세 이상의 은퇴 연령이 되는 경우 다시 부채보유 가구가 미보유가구보다 적은 것을 바탕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부채이용 용도나 이용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부채총액의 차이는 발생하며, 이러한 부채 이용용도나 금융기관 이용에 있어서 인구통계학적 및 소득 격차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제 1금융권 이용이 높게 나타나며 대체적으로 주택용도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직업에서 임시 일용직 및 무직의 경우 주택용도보다는 각각 기타와 소비생활 용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또한 월세와 기타 거주 형태를 한 가계의 경우에도 기타 및 당장의 소비에 필요한 목적으로 부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게 나타났다. 이는 직업의 차이나 거주형태의 차이가 부채이용 목적 및 이용기관에서 차이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금융격차가 더욱 발생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와 금융격차 해결을 위한 접근 방안으로 소득격차 및 가계의 직업, 거주형태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채이용 목적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 취약층이 생활비와 기타 용도와 같은 이유로 부채를 이용할 경우 대출 방법과 금융기관 이용방법에 있어서 이자의 부담이 적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경제적 수준으로 대출심사를 하여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 경우 경제적 악순환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로 금융권 이용에 있어서 월세 및 기타 입주 형태와 임시 일용근로자의 경우 제 3금융권 및 기타 이용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위험수위를 넘어 가속화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으로 가계부채를 발생하는 원인과 그 영향력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부채를 이용하는 용도에서 주택구매 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살펴보았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기반으로 급증한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의 가계재무 구조가 주택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감소의 실질적 재정정책 마련이 시급함하다고 본다. 반면 증권 투자금, 부채상환, 사업자금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는 금융관련 용도가 부채총액에 있어서 높게 나타났다. 경제침체로 인해 가계의 투자금 마련 및 부채상환의 부담이 결국에는 부채총액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내수 경기 침체와 소비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계가 부채 상환을 위한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소득에 따른 가계부채의 요인을 밝히는 것에 집중 되어 있던 기존의 연구를 부채 이용 목적이나 금융기관 이용 용도에 따른 가계부채를 고려한 연구로 확장시키는데 기여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부채 용도나 금융기관 이용에 따라 가계부채 총액이 차이가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가계의 부채 감소를 위해 접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른 측면을 재고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고, 이는 향후 가계부채 감소를 위한 방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경향신문(2016.11.1). 민간부문 부채 급증...BIS, 주의 단계 격상.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11012106015&code=920100
- 기획재정부 (2016.2.16). 북한 관련 최근 상황에 대한 국제신용평가기관 입장 -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안정적이며,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시적이라고 평가.
- 손종칠·최영주 (2015). 가구패널을 이용한 과다부채와 소비의 상관관계 분석.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22(1), 133-144.
- 아주경제 (2016.3.8).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3년째 주요신흥국 1위.
<http://www.ajunews.com/view/20160308104556848>
- 안유미 (2016). 국내 총부채 현황과 기업부채 수준의 한미일 비교. 자본시장 weekly, 13
- 양준모, 최진석(2007). 우리나라 가계의 포트폴리오선택과 Arrow 가설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계량경제학회, 18(3), 1-32
- 에너지경제 (2016.3.2). 쌓이는 가계부채...높아지는 소비절벽 우려.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04011>
- 이투데이 (2016.4.20). 저소득층 부채비율 150%초과. 부동산값 10% 떨어질 때 충격 일반가계의 3배,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319143>
- 이희숙·곽민주 (2013). 부채감소가계와 부채증가가계의 특성 비교. 한국PF학회, 6(2), 63-80.
- 임병인·윤재형 (2016). 소득계층별 위험금융자산투자의 결정요인 분석. 보험금융연구, 82,

- 임은정 (2013). 가계 부채특성과 부채비율이 가계의 경제적부담 및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소비문화연구*, 16(2), 117-138.
- 조영무 (2015.3.25). 소득계층별 가계부채 진단 저소득층 가계부채 리스크 커지고 있다. *LG Business Insight*.
- 한국은행 (2016.2.24). 2015년 4/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 한국은행 보도자료, 공보 2016-2-20호.
- 해럴드 경제 (2016.3.26). 무디스가 본 한국경제의 3대 취약요인 ... '기업부실 - 개혁지연 - 가계부채'.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325000816>
- 해럴드경제 (2016.8.10). 무더위 잇은 가계부채...7월 주담대 올해 최대폭 증가.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810000431>
- 해럴드경제(2016.09.25). “韓 가계빚 증가속도 빠르다” ... GDP대비 가계부채 세계 3위 · 14년째 신흥국 1위.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925000004>
- 황진영 · 이선호 (2015). 8. 가계부채의 소비와 소득에 대한 영향. *재정정책논집*, 17(2), 127-153 .
- KBS News (2015.5.4). 가계부채, 세계의 경고 속 태평 대한민국.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068851>
- YTN(2016.11.7). 경제 최대 위협 '중국에서 가계부채로'.
http://www.ytn.co.kr/_ln/0102_201611070717048443

국외문헌

- Becker, T. A., & Shabani, R. (2010). Outstanding debt and the household portfolio. *Review of Financial Studies*, 23(7), 2900-2934.
- Brown, S. B., & Taylor, K. B. (2005). Household Debt and Financial Assets: Evidence from Great Brita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 Cooper, D. (2012). US household deleveraging: what do the aggregate and household-level data tell us?. *Federal Reserve Bank of Boston Public Policy Brief*, (12-2).
- Dynan, K. (2012). Is a household debt overhang holding back consumptio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012(1), 299-362.
- Georgarakos, D., Haliassos, M., & Pasini, G. (2014). Household debt and social interactions. *Review of Financial Studies*, 27(5), 1404-1433.
- Johnson, K., & Li, G. (2007). Do high debt payments hinder household consumption smoothing?.
- Pressman, S., & Scott, R. (2013). Household Debt and Income Distribution.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7(2), 323-331.

기타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bok.or.kr